

PI첨단소재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 1H 선출하 효과에 따른 Destocking 영향에 전년동기 및 전분기 대비 실적 소폭 감소
-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해 기중 Destocking 해소
-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에 따른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속 전망
- 적정 재고 관리 강화 및 추가 차입금 상환 검토 등 재무 건전성 강화 정책 적극 추진

<2025-11-05>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국내 폴리이미드(PI) 소재 전문기업 PI첨단소재(178920)가

2025년 3분기 매출액 684억원, EBITDA 201억원, 영업이익 116억원, 순이익 84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선출하 효과에 따른 Destocking이 실적에 반영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3.2% 소폭 감소했고, EBITDA와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0.4%p, 0.2%p, 3.5%p 증가하며 전년동기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용도별로는 FPCB용 매출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재고 해소 및 기말 매출 증가세로 전년동기 대비 0.6% 증가, 전분기 대비 2.8% 감소한 287억원을 기록했다. 방열시트용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전분기 대비 10.1% 감소한 241억원을 기록했으나, 매출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전개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 역시 거뒀다. 첨단산업용 매출은 산업공정용 및 반도체용 필름 수요 증가가 EV/2차전지용 수요 정체를 만회하며 전년동기 및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156억원을 기록했다.

경영실적 안정화 효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반기 304억에 이어 3분기 약 318억 규모의 추가 차입금 상환을 단행하며 전분기 대비 유동비율은 238.1%에서 250.2%로 상승하고, 부채비율은 49.5%에서 39.2%로 하락하는 등 주요 재무지표가 대폭 개선되며 재무 건전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PI첨단소재 관계자는 “글로벌 EV시장의 수요 회복 지연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당사의 수출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관세정책 역시 현재까지는 당사에 유의미한 악영향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4분기에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에 따라 필름 수요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

대된다. 아울러 원부자재 가격 안정세와 ASP 상승 및 환율 효과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PI첨단소재는 초극박 필름을 포함한 신규 스페셜티 필름 제품군과 고후도 및 고성능 방열 필름의 매출을 확대하는 등 신제품 매출 확대 전략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비필름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본격화 전략을 병행하고, 시너지와 신사업개발을 중심으로 유럽 및 북미 지역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등 제품 및 고객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정비 통제 및 적정 재고 관리를 강화를 지속하고 3분기에 이어 4분기 중 차입금 추가 상환을 검토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한층 강화하여,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문의: PI첨단소재 한경완 과장 (02-2181-8635)**